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7.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獨, SNS 사업자의 게시물 관리의무 강화**
 - 독일 의회는 최근 「네트워크집행법」 개정을 통해 SNS 사업자가 기존 'SNS상 테러선동·혐오발언 등 게시물을 삭제' 외에 추가로 '해당 게시물과 작성자·IP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에 신고'하도록 의무를 부과, SNS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

미주

- **美, EU에 '무장 정치단체 헤즈볼라'를 테러단체로 지정 촉구**
 - 6.28 美 상·하원 의원들(공화당 17, 민주당 13)은 유럽에서 헤즈볼라*의 돈세탁·마약밀수 등 테러 지원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, EU에 '무장 정치단체 헤즈볼라'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도록 촉구
 - *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('85.2), 미국('97.10)·영국('01.3)·캐나다('02.12)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- **美, 자국내 최대 테러집단은 백인 극우단체**
 - 6.30 전략국제문제연구소(CSIS)는 테러보고서를 통해 '94년부터 '20.5월 까지 美에서 발생한 테러사건(893건)을 분석한 결과, 극우테러(57%)·좌파테러(25%)·종교테러(15%)·극단적 민족주의테러(3%) 順이라고 발표
 - * '20년에는 극우단체 테러가 미국내 테러의 90%를 차지

아·태평양

- **화재·테러에도 통신 가능한 '이동통신 재난로밍 서비스' 개시**
 - 6.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화재 및 테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시 장애가 없는 他 통신서비스로 자동로밍되는 '이동통신 재난로밍 서비스'*를 개시하고 시연행사 개최
 - * '18.11월 아현동 KT 지하 통신구 화재사고 계기, 통신재난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

○ 필리핀, 해외 테러리스트 유입으로 테러위협 증가

- 美 국무부의 「2019 국가별 테러 보고서」는 “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 등의 테러리스트가 필리핀으로 지속유입되고 있으며, ISIS 연계 테러단체인 ‘아부사야프’(ASG) 등이 이들을 조직원으로 흡수하고 있어 필리핀내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”고 지적

○ 인도네시아, 장관 암살 시도한 JAD 조직원 부부 징역형 선고

- 6.26 자카르타 법원은 작년 10월 ISIS에 충성맹세 후 정치법률 안보조정장관과 경찰서장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ISIS 연계 테러 단체 ‘자마 안샤룻 다울라’(JAD) 소속 「아부 라라」(51, 男)와 「피 트리아 디아나」(21, 女)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·9년을 선고

중 동

○ 이란, 테러 혐의로 「트럼프」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

- 6.29 이란 테헤란주 검찰은 「트럼프」 대통령을 비롯해 美軍·정보기관 36명에 대해 「솔레이마니」를 사살한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하고 인터폴에 ‘적색수배’를 요청
 - * 언론은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‘이란 무기금수조치 연장을 요구(6.24)한 것에 대한 반발성 정치 메시지라고 분석

아프리카

○ 서아프리카, ISIS-알카에다 간 패권 다툼

- 6.28 WSJ은 ISIS와 알카에다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서로를 ‘배신자’라고 부르며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보도
 - * 美 정보당국은 ISIS와 알카에다간 반목 이유가 지도부間 불화가 아니라 각자 작전을 벌이다 마찰을 빚은 것으로 분석

이집트 검찰총장 대상 폭탄테러

- '15. 6. 26. 「히삼 바라카트」 이집트 검찰총장 출근 차량을 겨냥한 자동차 폭탄테러로 검찰총장이 사망하고, 경호원과 민간인 등 9명이 부상



- 이집트 정부는 테러 배후로 이슬람단체인 '무슬림형제단'을 지목하고 - 테러에 직접 가담한 14명을 비롯해 '무슬림형제단' 조직원 48명을 체포('16.3월), '19.2월 주도자 9명에 대하여 사형 집행
- 당시 이집트에서는 '무슬림형제단' 출신의 「무르시」 대통령이 '13년 軍 총사령관 「엘시시」의 쿠데타로 실각한 후 쿠데타 주도 군부를 겨냥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빈발
- 이런 상황에서 「무르시」 前대통령을 비롯 '무슬림형제단'에 대한 기소를 주도한 「바라카트」 검찰총장이 테러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

< 무슬림형제단(Muslim Brotherhood) >

- (목 표) 아랍지역內 외세 배격 및 汎이슬람 국가 건설
* 러시아('03년)·이집트('13년)·사우디('14년) 테러단체로 지정
- (활동지역) 이집트·요르단·시리아 등 중동 및 北아프리카 일대
- (생성배경) 외세 자원착취와 이집트 세속주의에 반발, 정치·사회개혁운동을 위해 결성(1928)
- (조직규모) 500~1,000만명 *이집트內 100~200만명(핵심 조직원 25만명)
- (연계세력) 하마스(HAMAS)
- (특 징) ① 세계최대 이슬람 단체로 '05년 이집트 총선에서 최대 야당으로 부상
② 중동권(이집트·시리아·사우디·바레인·UAE)은 테러단체로, 터키와 서구권은 정치단체로 간주하는 등 同 단체에 대한 입장은 국가별로 相異
③ '16년부터 '혁명여단'·'하숨운동' 등 신생 연계 테러단체에 의한 정부 요인 대상 테러 증가

